

哲學 概念의 變遷

哲學의 普遍的 定義의 難點 (2)

金午星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소피-스트의 態度에 反感을 갖고 自己는 愛智者, 즉 智者가 아니고 오직 智를 사랑하는 者라고 自處한 것이다. 哲學은 어떤 完成된 智慧가 아니고 오직 智慧를 사랑함으로서 항상 그것을 追求해 마지않는 精神的 態度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影響을 바더서 哲學이란 名稱을 一層 意識的으로 規定지은 사람은 푸라-톤[플라톤]이다. 푸르-톤에 依하면 智를 사랑하는 것은 이데-[이데아](理念世界)를 憧憬하며 追憶하는 것을 意味한다.

다시 말하면 愛智의 精神은 雜多한 現象을 認識하려는 것이 아니고 現象의 뒤에 있는 本質을 追求하는 精神이며, 本質은 現象의 原型으로서 人間이 現實世界에 태어나기 以前에 살고 있던 故鄉임으로 自己의 故鄉인 本質 즉 理念世界를 憧憬하며 追憶하는 것이 哲學이라는 것이다. 哲學은 雜多한 現實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現實의 原型인 이데-를 對象으로 하며 이데-를 認識하는 것이 哲學의 目的인 것이다. 이리하여 哲學은 現實과 區別되는 本質 즉 이에 世界를 探究하는 學問으로서 그 概念이 서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古代 希臘의 哲學은 今日의 哲學과 그 概念이 달하다는 것을 忘却해서는 안된다. 現代人은 哲學을 오직 달은 學問, 特히 特殊과학과 區別해서만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哲學이란 名詞부터 特殊科學에 對한 格別한 意味를 갖고 있는 때문이다. 그런대 古代 希臘에 잇서는 아직 人間の 知性이 哲學과 科學을 區分해서 營爲할만한 階段에 이르지 못했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잇서는 오직 愛智의 精神이 잇슬뿐, 이 愛智의 精神인 哲學이 唯一한 知的 活動, 즉 唯一한 學問이였으며, 哲學 以外의 學問은 存立치 못했든 것이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哲學을 이데-의 認識으로 規定지였스나, 그것은 이데-와 區別되는 現象을 取扱하는 學問이 따로 잇서서가 아니었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플라-톤의 哲學을 理解할 수 잇슬 것이다. 즉 푸라-톤의 哲學은 이데-를 對象으로 하되 이데 以外의 것을 論駁하는 것이 아니고, 이데

와 現象, 즉 이데-에 依하여 現實을 解釋하려 한 것이다.

哲學을 特殊科學과 區分시킨 最初의 人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도 소크라테스와 가티 哲學을 愛智의 精神으로 보았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 依하면 哲學은 單히 智를 사랑하는 精神일 뿐 아니고, 愛智의 精神이 存在의 現象으로부터 그 本質까지를 追求하며 把握하는 것을 일음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로소퓌-를 一般的인 필로소퓌-와 부로데-[프로데] 필로소퓌-(第一哲學)로 區別했다. 前者 즉 一般的 필로소퓌는 個個의 特殊한 存在를 對象으로 하는 物理學과 가튼 것이요, 後者 즉 부르데! 퓌로소퓌는 『存在를 存在로서 그 本來의 固有에 屬한 것을 研究하는』 學問이다. 이러한 區分을 現代人이 學問을 分類하는 態度에 比해 보면 前者가 特殊科學이요, 後者가 哲學이라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一般的 필로소퓌-에 屬하는 物理學을 배운 뒤에 부로데! 퓌로소퓌(第一哲學)를 배우는 것이 順序上 適當하다고 생각하여 諸子들에게 그러한 順序로서 가르쳤다. 이 遺志를 맞아 그의 死後 그 遺著의 繼承者인 안드로니코스[안드로니코스]가 第一哲學을 『物理學의 뒤에 둔 書』라고 命名했다, 여기서 (Metaphysik) 즉 形而上學이란 말이 생겨났다. 그런데 希臘語에 잇서 Meta는 『背後에』란 意味를 가지는 同時에 또한 『넘어서』(超越)란 意味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메타퓌지크는 처음에는 物理學의 뒤에서 그 原理를 省察하는 것을 意味한 것이나, 차츰 形而上學, 즉 物理學을 超越하는 學問, 現實存在를 超越한 本質을 對象으로 하는 學問으로서 그 概念이 變化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以後 이러한 形而上學이 哲學을 代表하기에 일은 것이다.